

### 결핵에 의한 상대정맥증후군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진단방사선학교실\*, 흉부외과학교실\*\*

최대로, 김창환, 김성은, 박용범, 윤영철\*, 신윤철\*\*, 이재영

상대정맥증후군의 원인은, 효과적인 화학요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결핵이나 매독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원발성 혹은 전이성 종격동 종양에 의한다. 저자들은 근래에 보기 힘든 결핵에 의한 상대정맥증후군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증례 : 26세 여자가 내원 2개월 전부터 시작된 기침을 주소로 입원하였다. 동반증상은 좌위호흡, 상체를 굽힐 때 악화되는 호흡곤란, 발열, 야간발한, 1개월간 3kg의 체중감소 등이 있었다. 직업은 간호사였으며, 특이할 만한 과거병력은 없었다. 진찰소견은 혈압 130/80mmHg, 맥박 100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7.3℃이었고, 안면부종, 경부혈관확장, 상지부종 소견을 보였으나 흉부 청진에서는 특이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말초혈액검사와 동맥혈가스검사 등에 특이소견이 없었다. 방사선 검사에서 기관의 우측으로 비교적 경계가 명확한 4 x 3.5 x 3.0cm 크기의 종괴가 있었다. 상대정맥 내경이 종괴에 의해 좁아져 있었고, 기관의 원위부와 우측 주기관지, 상대정맥 등이 전위되어 있었다.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종괴의 조직검사에서 상피모양 조직구 증식을 동반한 급성 괴사성 화농성 염증 소견과 항산균 도말검사에서 2+로 결핵을 진단하였다. 환자는 항결핵제를 복용하였고, 입원기간 중 상대정맥증후군은 호전되었고, 외래 통한 추적검사에서 종격동 종괴는 크게 감소하였다.

### Biphasic type의 노력성 호기 유량-기량 곡선을 보인 기관지내 결핵 1예

인제대의 서울백병원 호흡기 내과 서승철, 이현경, 이성준, 이영민, 진재용, 이혁표, 최수전, 영호기

Gascoigne등은 한쪽 주기관지에 협착이 있을 때 노력성 호기 유량-기량 곡선이 Biphasic type(곡선의 초기 50%에서는 정상적인 모양이다가 이후에는 직선에 가까운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호기가 초반부에는 병변이 없는 폐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후반부에는 주기관지에 협착이 있는 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본 저자들은 biphasic type의 노력성 호기 유량-기량 곡선이 주기관지에 협착이 있는 기관지내 결핵의 진단에 도움이 된 증례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69세 여자가 약 8개월 전부터 심해진 마른기침과 이에 동반된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이학적 소견상 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만성병색을 보였다. 신체검진에서 우측폐야에 국한된 천명음이 들렸다. 검사실 소견은 혈색소 13.2g/dl, 백혈구 7540/ul(호중구 54.4%, 림프구 36.3%, 호산구 1.9%)였고 일반화학검사는 정상이었다. 폐기능 검사에서 biphasic type의 노력성 호기 유량-기량 곡선의 소견을 보였다. 청진소견과 폐기능 검사에서 우측 주기관지의 협착이 의심되어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하였다. 내시경 소견에서 우측 주기관지는 건락성 괴사물에 의해 내경이 감소되어 있었으며 점막은 충혈되고 탄분색의 색소침착을 보였다. 기관지 세척검사 항산균도말검사는 4+ 소견을 보였고, 내시경 하 조직검사에서 건락성괴사를 동반한 만성 육아종성 염증소견을 보여 결핵에 합당하였다. 환자는 이후 항 결핵약제를 복용하면서 외래 추적 관찰중이다.

